

Wendy L. Widder 박사, Daniel, 세션 14

다니엘 9:20-27, 회복의 계시

© 2024 웬디 위더(Wendy Widder)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14회, 다니엘 9장 20-27절, 회복계시록입니다.

이번 강의는 다니엘 9장에 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는 특별히 처음 두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는 다니엘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1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상황, 그가 있었던 시간과 장소를 설정하고, 또한 그의 놀라운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을 촉발하며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인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회복의 계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니엘이 염두에 두었던 회복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구약학문의 암울한 늪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음울하지 않습니다. 암울한 것은 장학금이다. 알았어, 20절.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내가 본 그 사람이 가브리엘이 처음 환상에는 저녁 제사 드릴 시간에 빨리 날아 나에게 나타났느니라. 그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어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통찰력과 총명을 주려고 나왔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자비를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한 마디 말이 나왔고, 너희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하러 왔다.

그러므로 말씀을 생각하고 비전을 이해하십시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속하여 영영한 의가 나타나며 묵시와 선지자가 인봉되고 지성소에 기름 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건축하라는 영이 나갈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통치자가 올 때까지 일곱 이레가 지날 것을 알고 깨달으라.

그런 다음 육십이 주 동안에 그 성을 다시 사각형과 해자로 건축하되 환란의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육십이 이레가 지나면 기름부음받은 자가 끊어져 아무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왕의 백성이 그 성읍과 성소를 멸하리라. 그 종말은 홍수로 오리니, 마지막에는 전쟁이 있으리로다. 황폐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과 강한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레의 절반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황폐하게 하는 자가 가증한 것의 날개 위에서 오나니 마침내 멸망하는 자에게 작성된 종말이 쏟아지리라."

좋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오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렇게 긴 도입부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말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 가브리엘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방금 말한 내용에 대한 모든 재진술, 방금 말한 내용의 요약과 함께 그는 무엇으로 머리말을 붙일까요? 내 생각에 요점의 일부는 다니엘의 기도의 주요 주제를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고, 간구해 왔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루살렘의 성산, 하나님의 성산, 성산을 위하여.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자신도 실제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는 가브리엘이 자신이 처음 환상에서 보았거나 이전 환상에서 본 사람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8장의 환상에서 구체적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가브리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7장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녁 제사 시간에 가브리엘이 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희생, 즉 매일 성전에서 드려졌던 저녁 희생에 대한 언급입니다.

따라서 이 저녁 제사에 대한 언급은 실제로 우리를 8장으로 연결시킵니다. 이 계시는 다니엘이 본 환상, 즉 다니엘 8장의 저녁과 아침에 대한 환상과 연결됩니다. 두 가지 모두 일용할 일을 모독하거나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희생제사, 성전을 더럽히는 일. 이는 또한 이 본문의 초점과 야훼의 도시, 예루살렘, 거룩한 산, 성전, 성소에 대한 네 가지 환상의 초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있는 곳이지만 우리는 또한 더 큰 장의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다리우스의 첫해에 있습니다. 우리는 땅을 회복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 자신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내가 당신에게 이해를 가르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8장에서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환상을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명할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브리엘이 무엇을 설명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간구가 시작될 때 기도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한 마디가 나갔고, 나도, 나도 왔다. ESV에 그런 강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어에는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우와. 이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메시지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중요합니다. 특히 다니엘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브리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자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그에게 권고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비전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은 방금 예레미야의 말씀, 곧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브리엘이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해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이해하라.

이제 우리는 마지막 네 구절인 24절부터 27절까지를 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니엘의 70이레라고 불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약 4개의 문제가 더 열립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자세히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이 다루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큰 그림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에 도달할 때의 경향은 해석의 혼란과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방법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그림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고 간구했고, 가브리엘은 이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마도 그가 설명할 복원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우리는 자기적인가요? 네, 우리는. 알았어, 알았어.

깜빡했어요. 좋아요,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거룩한 성을 위해 70이레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주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니엘은 7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가브리엘은 70년에 대한 이러한 반성에 대한 응답으로 오고 있으며, 예레미야의 예언을 재해석할 예정입니다. 그는 단지 70년이 아니라 70이레를 가리키는 것으로 재해석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레미야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묵시문학에서 흔히 발견하는 숨겨진 의미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70주. 그래서 우리는 음울한 늪에서 상황을 좀 더 다채롭게 유지하기 위해 첫 번째 문제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은 무엇입니까? 일주일이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주가 몇 년의 몇 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70주는 7년의 70배, 즉 490년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적어도 구약의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는 모세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일이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었던 방식은 그들이 7년 동안 그 땅을 경작할 수 있었고, 그 후 7년이 끝나면 그 땅에 안식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안식일로 안식되어야 했다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7년마다 땅은 안식일을 갖는다.

그러나 매 7안식년, 즉 70주 또는 7주마다 그들은 희년을 기념해야 했습니다. 먼저, 우리 땅은 7년마다 안식일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안식년이다.

땅이 휴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중 7개를 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의 7개 그룹은 49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50년이 되는 해는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빛을 탕감해 주어야 하고, 빛을 갠기 위해 조상의 땅을 팔아야 했던 것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땅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경제적 기반이 평준화되었습니다. 노예들은 해방되었고 땅은 원래 주인에게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주의 개념을 연습니다. 다음 장인 레위기 26장에서 우리는 백성이 언약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들이 언약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에 불순종하면 그들의 죄에 대해 7배의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 7과 주년이라는 숫자는 안식일과 희년과 관련된 레위기 개념에서 모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7년마다 있는 것입니다.

이는 1년에 7주마다 발생합니다. 알았어, 완전 명확해?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몇 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몇 주를 말한다면 490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490년에 맞는 계산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490년이 지났지만 그것도 상징적인 일입니다. 정확하고 둥근 숫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상징적이거나 주로 상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배경, 특히 희년의 배경에 기초한 상징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이자 첫 번째 응답입니다. 우리는 몇 주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자 그대로인가요? 상징적인가? 나는 상징적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손만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것이 묵시적인 문학과 상징주의가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숫자 7과 70은 구약과 고대 근동에서 실제로 상징적이고 중요한 숫자입니다.

충만함, 전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두 번째 성전 시대의 다른 묵시문학에서는 역사를 구조화하는 데 수가 사용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녹 첫째서에는 홍수로부터 노아 홍수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7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Qumran의 텍스트는 동일한 기간을 70주 동안 구성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다른 곳에도 이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희년과 안식년과 포로생활의 끝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좀 더 상징적인 견해를 선호한다.

그렇다면 여전히 질문이 있습니다. 상징주의는 얼마나 문자 그대로인가?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처리해야 할 세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7이 있고 62가 있고 실제로 반으로 나누어진 마지막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62주는 훨씬 더 길어야 할까요, 아니면 시간의 흐름이 전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상징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이점입니다. 좋아, 가브리엘이 너희 백성에게 70주를 정해 놓았다고 하네.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의 종말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을 말했다. 가브리엘은 70년은 더 큰 70년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70주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70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브리엘은 여섯 가지 목적을 제시합니다. 범법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8장에서 우리가 세 번 본 범법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그치고 악을 속죄하고 영원한 의가 나타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성소에 기쁨 부음이라. 그래서 가브리엘은 여섯 가지 목적을 제시하는데, 이 목적들은

예언의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하기 전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라고 말합니다. 이제 70주가 끝났습니다.

그 일이 끝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70주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에 따라 이러한 많은 일들이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중 상당수는 2세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치하의 박해 기간에 일어난 사건과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처음에 서신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지만 의미 면에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2세기의 역사적 성취 이상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우리가 이전 환상들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세 가지 목적, 즉 범법을 끝내고, 죄를 끝내고, 악을 속죄하는 것, 이 세 가지 모두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범죄의 결말은 범죄라는 단어의 의미와 그것이 실제로 8장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고려할 때 성전의 모독에 대해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행한 모든 범죄는 끝날 것입니다.

그의 범죄는 끝날 것입니다. 죄를 끝내고 죄악을 속죄하십시오. 여기에는 안티오코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다니엘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종류의 그의 백성의 죄를 자백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마도 적어도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안티오코스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역사적 언급보다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세 가지 목적입니다.

두 번째 세 가지 목적은 본질적으로 더 긍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의를 가져오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번 회복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어 성전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긴 하지만 그게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최초의 성취를 얻었고 성전은 다시 바로잡혔지만 아직 영원한 의는 없습니다.

비전과 이익을 보장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해 문서를 봉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기름을 부음. 다시 말하면, 그것은 회복된 성전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성소가 회복되었습니다.

확실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는 아마도 여기서는 좀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거기에서 성취된 것 같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또한 적어도 그가 부르는 종말론적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가 미래의 성취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는 그것이 바라는 이상적인 존재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하지 않은 조이스 볼드윈(Joyce Baldwin)이 해냈습니다. 이것이 다시 되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틴데일 구약 주석입니다. 다니엘, 분명히요.

짧고 달콤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평론가들이 다른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많은 잉크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바로 요점을 지적합니다.

그녀는 이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처음으로 성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참고자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이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이다.

2세기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루카스의 말에 따르면, 이 안티오크스는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나쁜 범죄,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큰 악에 대한 창백한 전조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여섯 가지 목적의 끝입니다.

사실 그것도 좀 쉬운 부분이었죠. 25절, 이것을 알고 이해하라. 그리고 가브리엘의 말 뒤에 나오는 것이 실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눕니다. 각 기간은 마샤흐(masach)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사건이나 사람, 기름부음받은 자, 기름부음받은 장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 기간이 있으며 각 기간은 기름부음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 기간은 7주, 62주, 그리고 마지막 주로 중간점이 있으므로 절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온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통치자가 올 때까지 일곱 이레, 즉 일곱 이레를 말한다.

그러면 7주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기름부음받은 자가 오느니라. 좋아요? 62일, 즉 62주 동안 거리와 참호를 건설하여 재건될 예정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입니다. 62 이레 후에는 기름부음받은 자가 끊어져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올 통치자의 백성이 그 성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기름부음받은 자가 잘려나갔습니다. 종말은 홍수처럼 올 것이다.

전쟁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며 황폐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분은 일 이레 동안 많은 사람과 언약을 세우실 것입니다. 일곱 날 중간에 제사와 예물을 그치시리라.

그는 작성된 최후가 그에게 부여될 때까지 성전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주는 이 황폐함, 이 언약, 희생과 예물, 가증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끝나면 70주가 채워지는 거겠죠? 그러므로 70이레의 성취는 우리를 가브리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70이레의 목적 중 하나는 무엇이였습니까? 마지막 것은 문자 그대로 가장 거룩한 것, 즉 지성소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7절에서는 따르지 않더라도 이것이 70이레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70이레의 끝은 거룩한 곳으로 기름부음 받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이제 저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많은 문제를 지나쳤습니다. 70주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다면 아마도 머릿속에서 알람처럼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일주일일 무엇입니까?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하라는 말씀이 나가는 데서부터라고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왔던 말이 뭐죠? 70주의 시작이니까 좀 중요하죠? 나왔던 말이 뭐죠? 이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학자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때로는 읽고 있는 성경 버전이 번역자의 선호도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ESV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바르(dabar)입니다.

NASB는 법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NRSV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번역가의 해석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옵션 또는 세 가지 주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제가 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부할 때마다 '아, 이거 둘 다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게 70주가 지나간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는 나간 이 말이 예레미야가 준 말씀이나 예언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단어, *dabar*는 종종 예언적인 단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왕실 법령과 같은 법령을 지칭하는 데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아마도 점이라는 단어를 찾을 것으로 예상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단어, 단어, 단어,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2절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23절에서 가브리엘이 밖으로 나온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서 이 구절 앞에 나오는 다바르(말)는 모두 야훼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야훼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견해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견해를 취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포로 생활 70년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고 있거나 미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둘 다 예레미야서에서 발견됩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나는 이것들을 조금 옮겨볼 것이다. 첫 번째 옵션은 그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페르시아 왕의 법령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법령. 글썄, 만약 당신이 그런 관점을 취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법령에 대해 네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539년에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성전 재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퍼지 공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키루스의 말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521년에 다리우스 1세의 법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로 고레스가 내린 539 법령을 재발행한 것입니다.

아니면 기원전 400년대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내린 두 가지 법령 중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58년에 그는 에스라와 그 일행이 에스라 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임명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445년에 아닥사스다(Artaxerxes)는 법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느헤미야에게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기술적이기를 원한다면 그 어느 것도 예루살렘 도시를 복원하고 재건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옵션입니다. 나온 단어에 대한 세 번째 선택은 23절과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가브리엘의 말입니다. 23절에 나오는 가브리엘의 말입니다. 계시는 가브리엘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Collins는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맥락이 이를 선호한다고 주장합니다. 방금 언급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이가 많은 복음주의 학자인 Young의 논평은 일종의 이런 견해를 취합니다. 그는 매력적일 수 있는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합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그 단어에 대한 언급은 23절과 25절에서 동일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가브리엘의 말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539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성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도 그것을 보거나 듣지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상 보이지 않는 사건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성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역사의 페이지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5절의 경우에는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 명백히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의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이것이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세 가지 옵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읽을 때 제가 건너뛴 또 다른 문제는 7과 62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약간의 불일치,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숫자는 두 개입니다.

7이 있고 62가 있습니다. 통역사와 번역가가 이 숫자를 읽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읽지 않은 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들을 하나의 단위로 읽는 것입니다. 따라서 7주가 지나고 이벤트가 발생하고 62주가 지나고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7주와 62주 동안 함께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읽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NIV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New American Standard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또한 킹제임스 성경에도 있고, 다른 많은 번역판에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7년 62년이 아니라 7 더하기 62년, 즉 69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갈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통치자가 오실 때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를 지내리라'고 읽었습니다. 기간. 그 도시는 거리와 참호를 가지고 재건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재건될 것입니다.

ESV와 New Revised Standard, 그리고 제가 읽는 방식은 이를 두 개의 별도 단위로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가는 때부터 기름부음받은 자, 곧 왕이 오는 때까지 7이레가 될 것이다. 기간.

그런 다음 62주 동안 사각형과 해자 등을 가지고 다시 건축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기간은 어디입니까? 글썄요, 그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에는 본질적으로 구두점은 없지만 독자가 절을 깨는 데 도움이 되는 악센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서 절이 깨지는 부분을 알아내세요. 그리고 7과 62 사이의 히브리어 악센트에는 상당한 단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분해하는 읽기는 히브리어 악센트에 충실합니다.

좋아요? 이것이 히브리어 역양으로 7주 후에 기름부음받은 자가 온다. 62주, 기름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히브리어 악센트가 본문이 기록된 당시부터 읽혀진 방식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훨씬 나중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서기관들을 반영하는지 여부입니다. , 메시아적 해석이었을 것에 대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아요? 따라서 함께 읽으면 아마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69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대기에서 여러분의 기름부음받은 자들은 같은 인물입니다.

7주 후에 올 기름부음 받은 자가 없고 그 뒤에 오는 기름부음 받은 자가 없으며 62주 후에 끊어지는 것이 없느니라. 내가 잘못 말하지 않도록 당신의 끝을 읽어 보겠습니다. 말씀이 나갈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때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있으리라

62주 동안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함께 갑니다. 하나의 기름부음받은 자가 있고, 본문에서 두 개의 다른 기름부음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의 지시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책이 메시아인 예수를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았던 유대인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이 책들을 따로 읽을 수 있도록 조정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로 읽으면 두 명의 다른 기름부음받은 자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해석자들에게는 둘 다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기름부음받은 자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많은 내용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악센트를 원본으로 읽을 것인지, 아니면 메시아적 해석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하려는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읽을 것인지입니다.

나는 실제로 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좋은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뚜렷한 기간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는 케이크를 먹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모호함은 의도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의미심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인간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의도적인 모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기다리게 만들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면.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문제인 주를 발행하세요. 문제 2: 단어가 무엇인가요?

문제 3: 7과 62로 무엇을 하시나요? 다음 문제는 기름부음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부음받은 자가 두 명 있습니다. 방이 부족해요.

우리에게는 기름부음받은 자가 두 명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어로는 기름부음받은 자가 아닙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부음받은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 여러 번역판과 번역본이 있는데, 이는 번역가의 해석적 결정입니다. 아니면 출판사의 해석적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기름부음받은 자를 대문자로 쓰면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름부음받은 자입니다. 본문은 기름부음 받은 자를 말한다. 둘 다 무기한입니다.

기름부음받은 자. 킹 제임스 성경, NIV, NASB는 모두 기름부음받은 자를 반영합니다. 이 기름부음받은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일곱 사도와 62사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당신의 견해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총 69주 동안 함께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부음받은 인물 한 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어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 분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69주 후에 오시는 분이기도 하고, 끊어지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언급입니다. 따로 읽으면 7주와 기름부음받은 이레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62이레와 기름부음받은 이레가 끊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첫 번째 기름부음받은 사람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는 49년, 7 곱하기 7년, 49년, 50년이 됩니다. 실제로 기름부음받은 자로 불리는 고레스일 수도 있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의 기름부음받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귀환자 중 한 사람인 스룹바벨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스가랴서에서 기름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아니면 기름의 아들이라 불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어떤 면에서는 유배에서 돌아온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잘려진 기름부음받은 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이 정말 나빠지기 직전인 기원전 171년에 암살된 유대인 대제사장으로 이해됩니다. 오니아스 3세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합법적인 자디키테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기름부음받은 자, 즉 끊어진 자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 숫자와 관련하여 더 중요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든 안식일과 희년의 상징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7개의 7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일곱 이레는 일곱 안식일을 세어야 했던 레위기 25장의 희년에 관한 지시를 암시한 것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그것은 7 곱하기 7년, 즉 49년입니다. 제가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것은 존 콜린스입니다. 그것은 토지가 조상 상속자들로부터 멀어지거나 사람이 계약 노예로 남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석방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어디에 있는지, 가브리엘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토지가 조상 상속자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최대 기간. 그것은 확실히 나에게 유배의 종말처럼 들립니다.

이스라엘은 조상의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연대기 기자는 그 땅이 사람들이 빼앗은 안식일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시적인 연결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아이디어가 다니엘 9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 기간과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서 소외된 기간을 반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니엘 9장의 배경에 있는 이 상징이 나로 하여금 첫 번째 기름부음받은 자, 7주 후에 오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포로의 끝과 관련될 것이라고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2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예언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유배지에서의 귀환과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 즉 70주차가 확실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엔 거기에 두 구절 전체가 바쳐져 있는 것 같아.

62는 우리가 궁극적인 충만함인 70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충전제입니다. 이 62개의 이레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지자들이 말한 영광스러운 회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의의 임함은 기름부음 받은 자가 먼저 임함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복된 백성은 여전히 이방 왕들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신 국가였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유대인들은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권력 투쟁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권력, 가장 지역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유대 대제사장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왕이나 어느 제국이 다스리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62주 후반에 합법적인 마지막 대제사장이 암살되었습니다. 62주가 끝나고 70주째가 시작됩니다.

좋아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70째 주에는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세부 사항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법과 구문이 매우 어렵고, 해설자들마다 절과 문장을 다르게 배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거룩한 성과 거룩한 곳은 멸망될 것이다. 종말은 홍수로 올 것입니다.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을 파기하고 성전 의식을 폐하며 성전 안에서 가증한 일을 폐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폐한 자의 파괴입니다.

우리는 안티오코스 4세 시대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역사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 예배를 파괴했습니다. 그는 일종의 혐오스러운 것을 두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리스 조각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의 동상.

그는 제사장들에게 돼지를 제단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끔찍한 한 주입니다. 끔찍한 시간.

그리고 그것은 효과적으로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제 그가 공사를 마친 후에도 사원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럽혀지고 더럽혀졌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말이군요. 하지만 실제로 70주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70주 끝이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장차 올 영원한 의입니다. 결국, 70주에 묘사된 사건들은 역사상 비슷한 패턴의 죄, 고난, 전제정치 동안 반복적으로 적용될 만큼 상징적이고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아직 하지 않은 일은 그것들을 다른 보기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적어도 큰 그림을 재검토하는 토론의 이 부분을 끝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희년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이 70이레의 배경에는 희년이 있습니다. 네 번째, 즉 유감스럽게도 희년까지의 일곱 번의 일곱 주간입니다.

나는 70주 동안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궁극적으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에 관해서는 죄송합니다. 7개입니다. 일곱과 62와 기름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어떻게 읽고 싶은지. 내가 당신이 함께 읽으면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별도로 읽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확실한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로 읽어보면 기름부음받은 자들은 적어도 이번 안티오키아 박해와 관련된 두 번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둘 다 가능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둘 다 그럴듯한 해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그것들을 분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나는 모호함이 메시지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의 영감, 감독하는 인간 저자, 아마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둘 다 그럴듯하고 가능합니다. 둘 다 예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다니엘의 초기 환상은 기원전 2세기를 즉시 다루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내 말은, 천국의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종말론적인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이상으로 나아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의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어떤 면에서든 그 목적지인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초기 비전은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가올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합니다. 70이레는 또한 안티오코스 시대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을 예언하지만, 그 이상은 예수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단지 힌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메시아 또는 메시아라는 단어, 즉 이 기름부음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성서에서 예수님에 관한 암호어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볼 때, 그것은 예수를 뜻한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기름부음받은 인물들에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것이며, 이 짧은 예언에서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최소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어쩌면 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부음받은 자 중 하나가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70주, 7주, 70주, 해의 주 구조에서 이러한 상징적 숫자의 사용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를 레위기, 즉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개념으로 되돌리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사건들, 율법에 기록된 사건들은 앞으로 예수께서 하실 사역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4장에서 왕국의 도래를 시작하시며 인용하시거나 회당에서 실제로 읽으시며 이사야 61장에서 천국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자라. 그분은 희년의 성취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희년이십니다.

그러므로 70이레는 70년의 유배 기간의 끝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들은 70년의 유배 기간이 언젠가 끝나게 될 더 큰 유배, 다가올 더 큰 유배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취, 그것을 끝내고 성취하는 사람은 바로 그 기름부음받은 자일 것입니다. 바벨론 유배 말기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고레스든 여호수아든 스룹바벨이든 그들의 사명은 임시적이었고 심지어 부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유배의 종말, 죄에 대한 유배의 종말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영구적입니다.

기름부음받은 자가 잘렸습니다. 만약 오니아스 3세라면, 그것은 최초의 역사적 지시 대상, 즉각적 역사적 지시 대상입니다. 오니아스 3세는 성직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희생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계속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의존하여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 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약성경의 신자들을 위한 70주 중 핵심은 예수님이 희년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율법의 일곱 칠 희년인 49년은 490년 동안 10배 성취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의 총만함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날인 궁극적인 재림에서 옵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70주 동안의 견해를 검토하는 강의를 여기서 한 번 더 짜낼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에 대해 가르치는 Dr. Wendy Widder입니다. 14회, 다니엘 9장 20-27절,

회복계시록입니다.